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삶

김성희/ 교육방송 「하나뿐인지구」 구성작가



인류 역사상 최대규모의 환경회의가 오는 6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다. 일명 「환경서미트」라고도 불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수십회에 걸친 관련 회의와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2만여명의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기, 토양, 수질, 폐기물, 국제시스템, 지구현장등 지구환경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온실효과 기여율 50%인 이산화탄소 발생의 억제를 위해 석탄·석유의 사용량을 규제할 것을 논의하게 된다. 기상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계속 늘게되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게 돼 2030년쯤에는 네덜란드, 이집트, 방글라데시의 저지대가 침수될 것이며 2100년쯤에는 지

구 기온이 지금보다 3℃정도 상승해 극심한 기상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석탄을 태우는 공업시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는 이러한 이산화탄소 뿐아니라 유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오염은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촌의 산소공장이라 할 열대우림이 파괴되면서 지구의 대기는 자정능력(Self-Purification)을 상실해 갈 뿐아니라 생태계파괴의 위협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6월1일 개최되는 유엔 환경회의에서는 ‘종(種)의 보고(寶庫)’라 할 열대림을 보호하여 생태계 파괴에서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조약」도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 국가와 개인의 환경보호

인간과 자연과의 파괴된 관계 회복은 욕심과 자기편리주의에서 떠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삶의 태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의무를 선언할 「지구헌장」과 자원보호, 폐기물관리등 20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정하는 「아젠다21」도 채택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를 현재와 후세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보고 경제발전속도 및 양태를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방안도 모색이 될 것이다.

과연 이 회의가 조상들이 물려준 땅, 후세에 물려줄 삶의 터를 위기에서 구할 묘안을 제시할 것인가? 개도국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하여 '선진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개발하고 발전할 권리'도 요구하고 있어 선진-개발국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서로의 이해를 만족시키며 인류 공동의 자산을 지킬 환경이념과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상앞에서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토론에 열중할 때에도 지구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구는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다.

국민학교 시절, 실오라기보다 더 작은 송사리가 헤엄치며 놀던 그 맑은 물이 생각난다. 돌 하나만 들추어도 가재며 개구리가 툭툭 튀어 나오던 그 시원한 계곡물, 그 물에서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아버지와 가재도 잡았다. 또 겨울엔 퐁퐁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썰매도 탔던 평창

동 골짜기의 깨끗한 물, 불과 10여년 만에 그곳에는 송사리도 개구리도 가재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악취나는 시궁창이 시커멓게 흐르고 있을 뿐이다. 구정물이 되어버린 그 개울가에 들어선 호화 빌라촌의 아이들은 지금 무슨 추억을 만들며 자라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더럽히고 망쳐버린 이 지구마을에서 우리의 후손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얼마전, 오랜만에 친구와 관악산 등반을 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꽤 많은 사람들이 산을 타고 있었다. 외국인도 몇명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들은 무언가 열심히 주우며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아무렇게나 버려진 과자봉지, 캔, 휴지조각들을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철저히 주우며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땅에 우리가 버린 휴지를 외국인이 주워 주다니!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도 비닐봉지 한 가득 휴지를 주우며 올라갔다. 정상이 가까와 오자 여기저기에서 야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기대감을 잔뜩 안고 오른 관악산 정상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서울상공의

시키면 매연층과 그 아래 뿌연 안개에 싸인 서울시내였다. 심호흡을 할 기분도 나지 않았다. 너와 내가 저 속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다니!

스모그 현상이 매우 심한 서울의 대기오염수준은 세계 10대 도시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1천만의 서울 인구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취사용 난방용 연료의 매연과, 전국 자동차 보유 대수의 절반이, 산업시설 30%가 서울에 몰려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육지의 3배에 달하는 면적과 17,361km의 긴 해안선, 연간 약 300만톤의 각종 어패류등 수산자원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맑은 물」이라 일컫는 1급수가 전혀 없으며, 지금도 여전히 해안 간척사업으로 해류가 변하여 양식장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또, 전국적으로 생활폐수와 각종 유해성 폐기물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과 골프장 건설로 산림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아마존의 밀림만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북한산, 설악산, 한라산이 인간의 무관심과 이기심 속에 파괴되고, 우리 반도 금수강산이 오염강산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이 우리 주변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다



보니 요즘 환경문제를 다룬 서적과 잡지들이 속속 출판되고 있다. 3월에는, '어린이들을 환경문제에 대한 감각을 지닌 시민으로 키운다'는 목표아래 「자연의 친구」라는 부제를 달고 잡지 「까치」가 창간되었고, 동시에 '윤리적인 과학의 개념 정립'을 목표로 한 「과학사상」이 창간되었다. 「과학사상」은 현재 환경문제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간이 지녀야 할 올바른 과학적 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다.

과학기술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여러가지 역현상이 발생하고 심지어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였다.

과학의 힘을 빌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인간을 자연은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려 한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사상은 자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잊게 했다. 창세기 1장28절에 "하나님이 그들(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쓰여있다.

최초의 인간은 '공해'라는 말조차 필요 없었을 그곳에서 이 명령에 따랐다. 그는 각 생물의 본성과 성향을 파악했으며 그에 따라 이름을 짓고 다스렸다. 그의 다스림은 지배도 파괴도 이용도 훼손도 아닌 「섬김」이었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주인

이 아니라 관리자임을 알았던 것이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인간의 무한한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도록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조물주 자신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운영되도록 선한 관리자가 될 것을 명하였다.

현대인은 마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중세인들처럼 모든 것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주기를,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성경의 명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기(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조물주와 자연 앞에 정직해져야 한다. 인간들은 우주와 세상에 대해 점점 많이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인간과 자연과의 파괴된 관계 회복은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욕심과 자기편리주의에서 떠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삶의 태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14절)